



건전하고 성숙된 환경 운동

이 승 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지 난 5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바 있다.

이 역학 조사는 지난 89년, 영광 원전 주변 주민의 무늬아 출산이 원전의 방사능 누출에 기인하였다는 시민 사회 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되었다.

92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5~6개 지방 대학 병원의 의사들이 참여하여 원전 종사자, 원전 주변 주민 및 대조 집단 3만명에 대해 종합적인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의 결과, 반핵 사회 단체의 주장이 허구에 찬 것임이 증명되었다.

원자력 종사자 및 관련자들은 당초부터 원전과 관련하여 무늬아·기형아 발생 등 여러 가지 반핵 시민 단체들의 엉뚱한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성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허가 및 운영 허가, 그리고 가동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규제를 통하여 이미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고 있었고, 둘째, 이러한 주장이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전 주변을 주기적으로 맴도는, 늘 있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관심과 조사의 대상이 되어온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규제 종사자로서, 근거가 희박한 얘기지만 그 진위 여부를 확실히 밝혀놓는 것이 일종의

국민에 대한 책무로 본다. 원자력 안전 규제는 공공의 위해 방지,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일종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주장들이 진실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민들에게 원전이나 방사선 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높여 주었으므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사 활동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원자력 종사자로서의 반핵 단체들에 대한 시각은 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핵 단체들은 원자력에 관한 한 무엇이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문제를 삼는 것처럼 보인다. 대책 사업인 원자력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선 어디에나 기형적이고 끔찍스러운 사진 등에 대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또 원전 주변에 끊임없이 나도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집결되며, 주민들의 금전적 보상 심리와 결탁하여 국가적 사업의 추진을 방해한다.

원자력에 관한 토론회·공청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찬핵자들의 모임으로 치부되고, 때로는 정치세(勢)와 결탁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한 선거 시기나 의회 회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반핵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지난해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의 경우에도, 지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활성 단층 징후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들

반핵 운동 내지 환경 운동은 필연적으로 정부 반대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정부의 입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정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파고 들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을 위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의 역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점점 더
 위상이 강화될 것이며, 정부가 줄어든 만큼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은
 시민 운동이 될 것이다. 이들은 예리한 감시자이며 동시에 견제 기관이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은 이를 그들의 투쟁 결과(?)로 선전하기도 한다.

하물며 국내 최고의 의학적 신뢰를 가진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관으로 각 지방 대학 병원의 많은 의사 등이 참여하여 수년간에 걸쳐 조사한 역학 조사 결과도 공정치 못한 조사 결과라는 비난 성명을 내기도 한다.

역학 조사 결과가 반핵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들의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건전한 활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반핵 운동 내지 환경 운동은 정부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인류가 현재 및 미래에 생존을 영위하는데 부적절한 요소를 줄임으로써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정부 반대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정부의 입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정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파고 들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을 위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점점 더 위상이 강화될 것이며, 정부가 줄어든 만큼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은 시민 운동이 될 것이다. 이들은 예리한 감시자이며 동시에 견제 기관이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사회의 건전성에 기반한다.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새로이 만들거나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결국 제도상의 그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 시민·사회가 건전하다면 제도의 그들은 그리 큰 영향을 발하지 않는다.

여러 선진국의 제도에서도 제도상의 허점은 항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숙된 시민 의식과 국민의 정직성에 있다.

국제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에서 이들을 만나보면 순진하고 정직하기 이를 데 없다. 예를 들어 출장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을 고액으로 끊고 이를 처리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울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돈 받은 것 이상의 영수증을 끊어주는 데도 없다.

이것이 정부의 본분을 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만 성숙하고 정직한 시민 운동의 기반에 올바른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합리적이며 대화가 통하는, 그리고 정직하고 성숙된 반핵 운동을 기원한다.

반기독교도(Anti-Christian)도 결국 예수(Christ)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향하에서 발생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